

농림수산식품부

▶▶ 대폭적인 조직개편 단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같은 핵심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식품부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부(部)내에 농식품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고위공무원단 직위)이 신설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수출확대 정책을 전담하는 '수출진흥팀'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보험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재해보험팀' ▲농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을 담당할 '농어촌산업팀'이 새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기존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도 일부 조정기로 했다.

특히 구제역, AI 등 방역업무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수급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동물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분리,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또 국경검역·방역기능을 강화하고 검역·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출범키로 했다고 전했다.

검역검사본부의 내부조직은 5부 29과, 6검역검사소, 30사무소로 구성되며 인원은 1천335명으로 짜여졌다.

방역업무와 관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위기대응센터, 구제역진단과, 권역별 5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설치된다.

또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은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고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해 어업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의 '출장소'도 '사무소'로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직개편으로 전체 인원은 4천863명에서 4천928명으로 65명 증가하게 된다"며 "늘어나는 인원은 구제역 백신 수급 등의 업무를 위한 인원 10명과 검역·방역 실무인력 55명"이라고 덧붙였다.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부터 도입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기를 구체화해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이를 실시기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엔 전업농,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천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두수로, 소의 경우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가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고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득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향후 구제역이나 시와 같은 가축 질병으로 매몰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몰처분 시 현재는 100% 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성 확인 농장은 시가의 80%만을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키로 했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가축 출하 및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질병이 발생하면 20~60%까지 감액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실시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P130 참조).

▶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매뉴얼 발간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 5월 11일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농수축산물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지 납품업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응방안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함으로써 산지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때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경영전략과 협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분쟁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인 구제수단도 상세히 안내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매뉴얼은 산지조직 워크숍 등을 계기로 하여 산지 납품업체에 교육용으로 순차 배포할 예정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도 게재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번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매뉴얼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매뉴얼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교육 및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 국립축산과학원 부속 동물병원 개원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농촌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질병발생 예방기술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국립축산과학원에 동물병원을 개설했다.

부속 동물병원에는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검사실, 세균배양실, 연구실 등의 시설과 질병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소속의 수의연구직 수의사 11명이 겸임근무를 하게 된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병든 가축의 치료, 임상병리검사, 전염병 검진 및 예방접종 등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진료와 축산시험연구사업,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 등과 연계된 축산농가 지원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손동수 수의연구관은 "앞으로 수의분야의 연구역량을 집중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씨가축이나 시험축 등에 대한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농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송아지 설사병이나 돼지의 소모성 질환 등의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클로렐라, 가축항생제 대체제로 적합

오는 7월부터 가축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클로렐라가 항생제 대체제 및 기능성 가축사료첨가제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정원경)은 지난 5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서 녹조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축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는 것을 대비한 녹조류의 축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 대체제의 경우 안전성과 가축의 질병예방 및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또 면역력 증가, 향균 및 향산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질 중 하나가 녹조류과에 속하는 클로렐라라는 게 서육석 축산과학원 가금과장의 설명이다.

서육석 과장은 클로렐라에 대해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소재의 안정성과 더불어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육석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축산과학원에서 육계를 대상으로 사료에 클로렐라를 첨가했을 때 그렇지 않은 육계에 비해 5% 정도 증체량이 늘어나는 등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화구 축산과학원 가금과 연구사는 클로렐라를 육계사료에 첨가해 급여할 경우 면역력이 증가하고, 장내 환경이 개선돼 닭의 체중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클로렐라에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단백질 함량이 높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것을 감안할 때 대량생산도 용이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축산분야에 적용하기 전 클로렐라를 배양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활용 등 보완적인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옥석 과장은 “항생제 대체제 원료로 클로렐라 만큼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클로렐라와 같은 녹조류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59주년 맞아 축헌제 진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개원 59주년을 맞아 축산연구사업과 구제역 등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5월 9일 ‘축헌제(畜魂祭)’를 올리고 전 직원의 합심 단결을 통해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5월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래 2011년 5월

10일자로 개원 59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청사내 있는 축헌비 앞에서 분향, 강신, 참신, 초헌, 축헌사 낭독,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헌비 앞에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배추와 무, 사료, 건조, 생초 등이 맨 앞에 위치하고 다음에는 흥동백서를 지켜 밤과 배, 꽃감, 대추, 사과, 당근 순으로 차려진 제상이 마련됐다.

▶▶ 칙소, 재래닭 분산해 ‘중복’ 보존

농촌진흥청은 각도 지자체 소속 9개 기관을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희소 가축의 보호·육성과 악성질병으로부터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상호 중복분산 보존을 하고 있다.

분산 보존을 위해 칙소의 동결정액과 중복 보존 중인 재래닭의 종란을 각각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충청북도 가축위생연구소 등 축산관련 2개 관리기관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그동안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에서 제공한 칙소 종모우 2두로부터 생산된 동결정액 1,144스트로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유래 중복보존 중인 재래닭 4계통에 대한 종란 731개를 해당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토종유전자원의 분산 중복보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래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각도 관리기관 및 일부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중 6품종 27계통 약 3,000수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중복 보존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축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이 국제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2009년 11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책임기관으로서 11개 관리기관(9개 도기관 및 2개 대학)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유전자원의 분산·중복 보존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비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상반기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5월 17일 상반기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윤리경영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청렴윤리 실천규범 강화 등 가시적 성과창출 9대 목표를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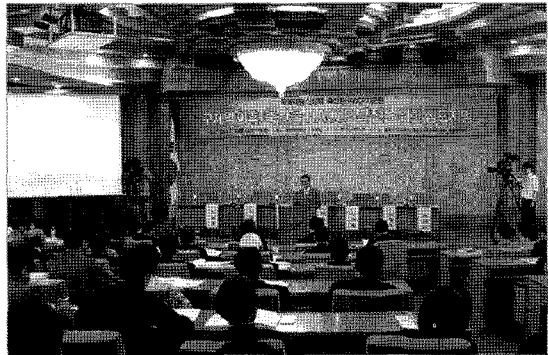
윤리경영사무국을 중심으로 9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윤리경영지수 개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윤리익식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사회공헌율 목표치 상향설정 등 시스템적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한 다짐대회 후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서약을 했다.

자체 윤리규범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반부패 청렴서약 명문화와 팔도청렴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 HACCP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구제역 이후 축산물 HACCP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내 축산물의 소비 위축과 수입 축산물 증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축산물 HACCP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축산 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농식품부 정승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구제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HACCP를 통해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생·안전이라는 무기를 농장마다 장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패널로 참석한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구제역을 통해 본 HACCP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해, 김재욱 한국소비자단

체협의회 회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이해'라는 주제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장 HACCP 인증 제고 방안 및 적용사례'라는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최농훈 교수는 '축산물 HACCP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협성대학교의 윤원근 교수는 '농촌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석희진 원장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구축할 수 있는 농장 HACC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 현장에서 HACCP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5월 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부서장 청렴서약'과 부패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품향응 수수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결의를 담은 선서를 통해 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석희진 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자율적 개선을 통한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과 함께 기준원의 청렴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 청렴도 제고와 반부패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차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5월 23일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2층 문화센터에서 2011년도 제2차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상담은 충북지역에 소재한 축산물 HACCP 지정업소(농장)나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농장)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참여한 업체는 28개소, 33명으로 중부지원 심사관 6명이 1:1 형식의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에서는 축산물HACCP를 추진 중인 업소(농장)의 HACCP 준비 과정과 심사매뉴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거리상의 제약으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지역의 축산물HACCP적용 업소(농장)를 위해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축산물HACCP 무료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턴트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5월 26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육단계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2011년 국가지원컨설팅사업 선정업체와 농협, 유업체 농가 지도조직 등 총 21개 업체에서 2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그리고 컨설팅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농장을 직접 지도하는 컨설턴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사육단계 HACCP 평가기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서 사육단계 HACCP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 실행위주의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컨설턴트들이 농가를 지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Farm to Table HACCP 시스템 구축의 최전선에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가를 지도해야 하며, 현장에서 HACCP 시스템 적용 시 농가가 스스로 HACCP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실행위주의 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농수축산연합회

▶▶ 출범식 개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농어업의 주체로 활동하게 될 ‘농수축산연합회’가 지난 5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장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 등 10개 농수축산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현대컨벤션웨딩홀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성윤환(경북 상주)·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 김영록 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경남 사천) 의원 및 소속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준봉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단결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농어민의 대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농어촌을 만드는 일에 농수축산연합회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